

## 아동의 말차례 끼어들기 양상에 대한 연구\*

김 정 선(한양대)

### < 차 례 >

- I. 서론
- II. 아동의 말차례 끼어들기 양상
- III. 결론

### I. 서론

말차례 교체 능력은 대화 상황에서 화자와 청자가 동일한 주제로 이야기를 하면서 서로 적절하게 말을 주고받는 기술로, 말차례 교체 수행을 위해서는 상대방이 말을 하고 있는 동안에 상대방의 발화를 방해하지 않는 기술, 상대방의 발화에 대해 적절하게 반응하는 기술, 상대방이 시작한 대화 주제를 유지해서 말하는 기술 등이 요구된다(Owens, 2004). 따라서 대화에서 말차례 교체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대화 규칙을 알아야 하고, 대화 상대방과 상황 맥락에 따라 대화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 이 논문은 2010년 한양대학교 교내 연구비 지원으로 연구되었음(HY-201000000000378-N).

인식하여야만 한다(이효진·김영태 2001). 특히, 아동의 말차레 교체는 대화 능력과 더불어 대화 참여자로서 요구되는 상호작용 능력, 관계 유지 등의 사회 능력 발달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Owens, 2004).

아동의 말차레 교체에 대한 연구는 주로 발달 장애아를 대상으로 수행되고 있고(이효진·김영태 2001, 김성은·이윤경 2007),<sup>1)</sup> 단순히 순차적 말차레와 중첩 말차레의 비율만을 분석하고 있어 정상 아동의 말차레 끼어들기의 구체적인 특성이 파악되지 못하고 있다. 국내 정상 아동을 대상으로 하여 과연 말차레 교체 규칙의 습득이 이루어지는 시기가 언제인지, 구체적인 습득 과정은 어떠한지 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한편, 정상 화자의 말차레 끼어들기에 대한 연구에는 토크쇼(이원표 2001), 토론(박정진 2009), 일상 대화(이원표 2001, 김순자 2001) 등을 대상으로 하위 유형, 성별 차이 등 일부 담화 유형과 주제에 집중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34~41개월 정상 아동의 말차레 교체에서 일어나는 끼어들기 양상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아동의 언어 발달 단계에서 문장을 발화하는 시기가 24개월 전후이고, 말차레 교체 규칙을 습득하고 대화 개시 및 유지가 가능한 연령은 4, 5세이다(이승복 1994). 즉, 여러 문장으로 구성된 발화 단위로 말차레를 교체하며 상호작용하는 규칙을 습득하는 과정을 볼 수 있는 시기에 34~41개월이 포함된다.<sup>2)</sup> 이 시기는 말차레 교체의 규칙은 배웠다 하더라도 아직은 상호작용적 기술이 부족한 시기이다.<sup>3)</sup>

1) 이효진·김영태(2001)에서는 단순언어장애 아동의 대화 말차레 특성을 ‘중첩 및 순차적 말차레 비율, 상대중심 말차레 비율, 말차레당 발화수, 즉각 반응율, 의미연결 반응율’ 등을 분석하고 있고, 김성은·이윤경(2007)에서는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장애 아동의 말차레 주고받기 특성을 ‘말차레 주고받기 비율과 중복 비율, 주제 유지, 대화 반응의 적절/부적절’ 등을 분석하고 있다.

2) 조사 대상을 41개월까지로 한 이유는 자료 수집과 관련이 있다. 종적 자료 수집 결과 네 아동이 동일한 개월에 해당하는 지점이 41개월이었다.

3) 김정선·장경희(2007)에서는 발화 교환 행위를 요구 화행(선행 화행)과 응대 화행(후행 화행)으로 구분하여 12개월부터 6개월 간격으로 나누어 35개월까지의 아동을 분석하였는데, 30~35개월 단계가 되면 요구 화행이 52.1%, 응대 화행이 41.3%, 혼잣

본 연구에서 분석하고자 하는 ‘말차례 끼어들기’는 선행 연구들에서 ‘말 중복, 말 겹침, 말차례 뺏기’ 등의 용어와 구별이 필요하다. ‘말 중복, 말 겹침’과 ‘말차례 끼어들기, 말차례 뺏기’의 차이는 전자는 두 사람의 말이 겹친다는 ‘결과’의 의미만 있고, ‘행위’의 개념이 제대로 표현되지 못하고 있다(이원표 2001).<sup>4)</sup> 본 연구에서 말차례 교체는 상호작용 행위적 관점에서 논의되어야 한다고 보고, ‘말차례 끼어들기’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로 한다. ‘말차례 끼어들기’의 하위 유형에 대해서는 이원표(2001)에서 제시한 ‘우발적 말 끼어들기, 우호적 말 끼어들기, 비우호적 말 끼어들기’로 구분한다.<sup>5)</sup> 본 연구에서는 대화 상대방의 말차례에 아동의 말차례가 끼어들기한 경우만을 분석한다.

본 연구의 분석 자료는 한양대학교 <연령별 대화 말뭉치> 중 일부로, 31~41개월의 아동 4명을 대상으로 하였다.<sup>6)</sup> 조사 대상 아동은 정상 발달을 보이며 서울·경기 지역에 거주하였고, 성별은 여아 2명, 남아 2명이다. 아동이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자연스러운 발화를 수집하기 위해 가정에서 부모가 직접 녹음하였다. 녹음은 1주일 간격으로 12개월 동안 진행되었고,<sup>7)</sup> 녹음 시간은 1시간이며, 녹음 날짜, 대화 참여자, 녹음 상황

---

말이 6.6%로 수행되어 상호작용적 행위가 대화의 90% 이상을 차지하게 되었다.

- 4) ‘말 끼어들기, 말 중복, 말 뺏기’ 등의 용어에 대해서는 이원표(2001), 임규홍(2001)을 참고하기 바란다.
- 5) 이원표(2001)에서는 ‘말 끼어들기’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청자반응신호, 우발적 말 끼어들기, 우호적 말 끼어들기(대화의 공동구성, 명료화 요청, 요지에 부합하는 화제의 전개 및 발전, 선호반응, 친밀감 증진), 비우호적 말 끼어들기’로 하위 구분하였다. 이들 용어는 Bennett(1981)의 견해를 반영한 것으로 고의성(intentionality)과 담화에서의 기능에 따른 분류이다.
- 6) <연령별 대화 말뭉치>(한양대학교 교육문제연구소)는 만 1세 미만의 영아부터 성인까지의 음성 자료와 전자 자료를 연령에 따라 균형적으로 구축한 말뭉치이다. 종적 자료와 횡적 자료를 모두 구축하여 언어 발달 및 연령대별 특성을 파악하는 데에 기초 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 특히 종적 자료는 조사 시작 시점에서 0~36개월 사이의 영유아를 6개월 단위로 나누어 수집하였으며, 12개월 미만의 유아는 2주 1회 120분, 12개월 이상의 유아는 1주 1회 60분 연속으로 녹음하였다. 녹음 장소는 각 가정으로 하고, 자연스러운 상황에서 양육자가 녹음을 담당하도록 하였다.
- 7) 아동에 따라 전체 녹음 기간에서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등에 정보는 녹음 일지에 기록하도록 하였다. 조사 대상 아동의 월령별 파일 분포를 보이면 다음과 같다.

〈표 1〉 개월별 파일 수<sup>8)</sup>

대상	개월별 파일 수									합계
	33개월	34개월	35개월	36개월	37개월	38개월	39개월	40개월	41개월	
SJ(F)	-	2	2	2	2	2	2	2	2	16
YJ(F)	1	1	2	2	2	2	2	2	2	16
DU(M)	-	2	2	2	2	2	2	2	2	16
SB(M)	-	2	2	2	2	2	2	2	2	16
합계	1	7	8	8	8	8	8	8	8	64

## II. 아동의 말차레 끼어들기 양상

이 장에서는 일상 대화에서 아동의 말차레 끼어들기가 어느 정도인지를 알아보고, 끼어들기의 하위 유형별 출현 빈도와 구체적인 수행 양상을 살펴보기로 한다.

### 1. 말차레 끼어들기 비율

아동의 말차레 끼어들기 비율이 어느 정도인지를 조사하기 위해 아동의 전체 말차레 가운데 아동에 의해 끼어들기가 일어난 말차레 빈도를 조사하였다. 분석 자료에서 아동 전체의 말차레는 14,141회였으며, 끼어들기가 일어난 말차레는 592회로 평균 4.2%의 끼어들기 말차레가 출현

8) 대상 파일이 없는 경우는 조사 시작 시점이 달라서 발생한 것이다. <연령별 구어 말뭉치>는 설계 단계에서 6개월 단위로 아동의 집단을 구분하였으며 이때 조사 시작 시점에서의 개월이 아동별로 차이가 있는 것이다.

하였다. Levinson(1983)에서 말차레 중복(overlap)이 5% 이하라고 언급한 것과 비교해 보면, 아동과 성인의 대화에서 아동에 의한 말차레 끼어들기가 4.2%라는 사실은 비교적 높은 비율로 말차레 끼어들기가 일어난다고 볼 수 있겠다.<sup>9)</sup>

분석 대상 아동별로 전체 말차레 대비 끼어들기 말차레 출현 비율을 개월에 따라 보이면 <표 2>와 같다.

<표 2> 아동별 말차레 끼어들기 비율

개월	SJ(F)			YJ(F)			DU(M)			SB(M)		
	전체 말차레	끼어들기 말차레	비율 (%)	전체 말차레	끼어들기 말차레	비율 (%)	전체 말차레	끼어들기 말차레	비율 (%)	전체 말차레	끼어들기 말차레	비율 (%)
33	-	-	-	-	-	-	149	9	6.04	-	-	-
34	407	3	0.74	618	0	0.00	175	15	8.57	441	20	4.54
35	383	8	2.09	490	6	1.22	416	19	4.57	532	21	3.95
36	411	6	1.46	587	22	3.75	505	42	8.32	527	20	3.80
37	377	12	3.18	448	17	3.79	449	29	6.46	458	18	3.93
38	413	16	3.87	470	19	4.04	430	12	2.79	494	18	3.64
39	305	9	2.95	336	16	4.76	331	22	6.65	530	35	6.60
40	358	7	1.96	497	9	1.81	407	19	4.67	520	42	8.08
41	399	17	4.26	443	16	3.61	366	35	9.56	469	33	7.04
합계	3053	78	2.55	3889	105	2.70	3228	202	6.26	3971	207	5.21

네 명의 아동 모두 개월에 따른 변화 추이는 보이지 않고 있다. 성별에 따른 차이는 여아인 SJ와 YJ은 2.55%, 2.7%로 3% 미만의 비율을 보이고 있지만, 남아인 DU과 SB은 6.26%, 5.21%의 비율을 보여 여아에 비해 2배 이상 높게 말차레 끼어들기가 나타나고 있다.

www.kci.go.kr

9) 아동과의 대화 상대방인 성인에 의한 말차레 끼어들기가 빠진 비율이 4.2%이므로 전체 대화에서의 말차레 끼어들기 비율은 상당히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 2. 말차례 끼어들기의 하위 유형별 수행 양상

본 연구에서는 말차례 끼어들기를 ‘우호적, 비우호적, 우발적, 기타’로 구분하였다.<sup>10)</sup> 말차례 끼어들기의 하위 유형별 출현 빈도와 비율을 아동 별로 <표 3>에 제시한다.

<표 3> 말차례 끼어들기의 하위 유형별 비율

하위 유형	구분	SJ(F)	YJ(F)	DU(M)	SB(M)	합계
우호적	출현빈도	8	6	14	24	52
	비율	10.3%	5.7%	6.9%	11.6%	8.8%
비우호적	출현빈도	24	33	63	58	178
	비율	30.8%	31.4%	31.2%	28.0%	30.1%
우발적	출현빈도	34	51	87	108	280
	비율	43.6%	48.6%	43.1%	52.2%	47.3%
기타	출현빈도	12	15	38	17	82
	비율	15.4%	14.3%	18.8%	8.2%	13.9%
소계		78	105	202	207	592

<표 3>을 보면, 조사 대상 아동 네 명 모두 ‘우발적 > 비우호적 > 우호적’의 순으로 말차례 끼어들기의 출현 빈도를 보이고 있다. 언어 습득 단계에 있는 아동의 경우 성인들과는 달리 말차례 교체 적정 지점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발생하는 우발적 말차례 끼어들기가 가장 높은 빈도로 출현하고 있었다. 갈등을 유발할 수 있는 ‘비우호적 말차례 끼어들기’도 높은 빈도로 출현하고 있어 아동의 말차례 끼어들기 수행 양상이 성인과는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sup>11)</sup>

10) 기타는 말차례 끼어들기가 발생하였지만 발화 내용을 정확히 파악할 수 없어 세부 하위 유형 구분이 불가능한 것들을 말한다. 전체 말차례에서 끼어들기 말차례를 조사하기 위해 설정한 것으로 하위 유형을 논의하는 자리에서는 제외하기로 한다.

11) 이원표(2001)에서 분석한 토크쇼의 말 끼어들기 결과와 비교해 보면, 청자반응 522회(77%), 우발적 4회(1%), 우호적 138회(20%), 비우호적 15회(2%)로 본 연구와는 큰 차이를 보였다.

이제 하위 유형별 구체적인 말차레 끼어들기의 수행 양상을 살펴보기로 한다.

1) 우호적 말차레 끼어들기

교체 적정 지점으로 볼 수 없는 곳에서 고의적으로 말을 시작하여 말차레를 가져오려고 하며, 화자의 의도가 현행 화자의 말화에 도움을 주거나 의사소통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끼어드는 경우를 우호적 말차레 끼어들기라 본다(이원표 2001 : 292). 본 연구의 자료에서 우호적 말차레 끼어들기는 총 52회 출현하여, 아동에 의해 끼어들기가 시도된 말차레 592회 중 8.8%를 차지하고 있다. <표 4>는 아동별 개월에 따른 출현 빈도이다.

<표 4> 우호적 말차레 끼어들기의 개월별 출현 빈도

개월	SJ(F)	YJ(F)	DU(M)	SB(M)	합계
33	-	-	0	-	0
34	1	0	0	2	3
35	0	0	3	2	5
36	1	2	3	2	8
37	1	1	8	0	10
38	1	1	0	1	3
39	0	1	0	5	6
40	2	1	0	8	11
41	2	0	0	4	6
합계	8	6	14	24	52

우호적 말차레 끼어들기는 SJ는 35개월, 39개월에, YJ는 34개월, 35개월, 41개월에, DU는 33개월, 34개월, 38개월, 39개월, 40개월에, SB는 37개월에 1회도 출현하지 않았고, 개월에 따라 일정한 변화 추이를 보이지 않았다.

아동에 의한 우호적 말차레 끼어들기는 적극적인 응대 태도를 드러내

거나 대화의 주제를 전개하며 일어나고 있었다.

아동이 대화에서 보이는 적극적인 응대 태도는 대화 상대방의 질문에 말차레를 중복시키면서까지 대답을 빨리 하려는 태도에서 볼 수 있다. (1)에서 엄마의 질문 발화가 채 끝나기도 전에 아동은 대답을 하고 있다.

(1) 엄마 : 자동차가 [1몇 개?

아동 : [1하나-둘-셋 너무 많지. <SB(M), 35개월>

아동은 대화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질문을 하기 위해 끼어드는 경우도 있는데, 적극적인 경청 태도에서 비롯된 것으로 파악된다.<sup>12)</sup>

(2) 아동 : 오빠 언니도 다 잡아 먹어?

엄마 : 그래. 그럼 어떻게 할 꺼야.

아동 : 아기 염소는? 아기 삼 형제는?

엄마 : 아기 삼 형제도 잡아먹으려고 했잖아 [1늑대가.

아동 : [1왜?

아동 : 왜?

엄마 : 배가 고프니깐.

아동 : 응 왜 잡아먹었어? <YJ(F), 40개월>

(2)에서 아동은 엄마의 이야기 내용 중 궁금한 것을 엄마의 발화가 끝나지 않았는데도 ‘왜?’라고 질문을 하여 말차레 끼어들기가 일어나고 있다. 이때 말차레 끼어들기를 일으키는 아동의 발화는 선행 화자인 엄마의 발화에 관심을 보이며 적극적으로 듣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다.

아동의 우호적 말차레 끼어들기에는 대화 상대방의 발화에 대해 적극

12) 이창덕 외(2000)에서는 대화적 듣기에 필요한 기술로 ‘상대방이 한 말을 자신이 이해한 내용으로 바꾸어 말하기, 상대방이 말한 내용에 대한 명료화 질문하기, 상대방에게 이해한 정도에 대한 즉각적인 피드백 보내기’ 등이 있다고 하였고, 임철일의 옮김(1999)에서는 적극적인 듣기 방법에 ‘바꾸어 말하기, 명료화하기, 피드백하기’ 등이 있다고 설명하였다.



적인 동의를 표하는 것도 포함된다.

- (3) 아동 : ((-)) 안돼-!(어조 ; 고향을 지름)  
 엄마 : 이번에는 이모한테 뭐라 그러네.  
 아동, 엄마 : <웃음/헤헤헤>  
 엄마 : 이번[1에는 이모한테 뭐라 그러네,  
 아동 : [1맞어, 맞아 맞아 맞아,  
 이모 : ○○아, 그렇게 하면 엄마가 떨어뜨리[1((-)),  
 엄마 : [1꿀 꿀 꿀,  
 엄마 : ○○이한테 뭐라 그러네, <SB(M), 39개월>

(3)에서 엄마는 대화 장면에서 있는 형이 이모에게 하는 행동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아동은 엄마의 발화 내용에 ‘맞어, 맞아 맞아 맞아’로 적극적인 동의를 하며 말차례에 끼어들고 있다.

대화 상대방이 현재 발화하는 내용에 대해 전개가 어떻게 이루어질지 예상하여 발화하거나 발화 내용에 자신의 의견을 덧붙여 주제 전개가 이루어지게 하는 과정에서도 말차례 끼어들기를 볼 수 있다.

- (4) 아동 : 내 꺼야-. & 엄마 풀 쥐 봐. 아니 테이프 쥐 봐.  
 엄마 : 테이프 없는데?  
 아동 : 테이프.  
 엄마 : 블럭에, 블럭은 블럭끼리 되= 쥐 봐, 이렇게 되는거야. 왜 테이프에다 해. 큰 블럭에다 꺾을 수 없구, [1작은 블럭은 작은 블럭끼리 이렇게 쌓아가는 거야.  
 아동 : [1작은,  
 아동 : 맞다. 알겠다. <DU(M), 35개월>

- (5) 아동 : 지금은 왜 안 가?  
 엄마 : 이제 껌껌해지는데.  
 아동 : 어두워져요?  
 엄마 : 네. 이제 껌껌해지니까, [1지금은 못 가요.

아동 : [나중에 가 봐요-.  
엄마 : 응.  
아동 : 엄마, 지금 한번 꼭= 지금-, ((코 자고)) 위험하게 할머니 집  
에 가= 놀러 가 봐요. <SJ(F), 41개월>

- (6) 엄마 : ○○아 푸른 반 선생님 무서워? 왜 무서워?  
아동 : 그냥.  
엄마 : 그냥?  
아동 : 그냥 혼 내.  
엄마 : 혼 [내?  
아동 : [1무섭게,  
아동 : 무섭게 혼 내. <DU(M), 35개월>

(4)에서 아동과 함께 블록을 가지고 놀면서 엄마가 발화한 내용에 아동은 앞으로 발화할 내용을 예상하여 발화하다 말차례 끼어들기가 일어나고 있다. (5)에서 아동은 ‘이제 껌껌해지니까 지금 못 간다’는 내용을 예상하고, ‘나중에 가 봐요’라는 자신의 의견을 내놓으며 말차례 끼어들기가 일어나고 있는데, 이때의 발화는 주제를 발전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 (5)의 주제 전개가 선행 화자가 제시한 것에 대한 것이라면, (6)은 자신이 제시하고 있는 내용을 전개시키는 과정에서 말차례 끼어들기가 일어난 경우이다. (6)에서 아동은 엄마의 확인 질문에 추가로 정보를 제공하면서 말차례 끼어들기가 일어나고 있다.

대화 상대방의 발화에 대한 확인 질문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말차례 끼어들기가 일어나기도 한다. 이원표(2001)에서의 명료화 요청에 해당한다.

- (7) 아동 : 녹음 (-),  
엄마 : 엄마 과자 좀 주세요 [1배고파요.  
아동 : [1과자?  
아동 : 배고파?  
엄마 : 네. <YJ(F), 37개월>

(7)은 역할 놀이를 하는 엄마와 아동의 대화로 아동은 엄마의 선행 발화 가운데 확인을 위해 ‘과자’를 발화하고 있는데, 선행 화자의 발화가 끝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말차레 끼어들기가 일어났다. 아동은 말차레 끼어들기로 중복된 발화에 대해서도 확인 질문을 통해 확인하고 있다.

이상과 같이 아동의 우호적 말차레 끼어들기는 출현 빈도는 높지 않지만 선행 화자의 발화 내용에 대한 적극적 응대, 동의, 확인 요청 등을 위해 출현하고 있어 성인 대화에서의 ‘우호적 말차레 끼어들기’와 유사한 양상을 보였다.<sup>13)</sup>

## 2) 비우호적 말차레 끼어들기

비우호적 말차레 끼어들기란 현재 화자의 말차레를 빼앗거나 체면과 이야기의 진행이란 측면에서 현재 화자에게 바람직하지 못한 의도로 교체 적정 지점 이전에 끼어드는 행위를 말한다(이원표 2001 : 307). 분석 자료에서 비우호적 말차레 끼어들기는 전체 592회 말차레 가운데 178회 출현하여 30.1%의 출현 비율을 보였다. 아동별 개월에 따른 변화 양상을 보이면 <표 5>와 같다.

<표 5> 비우호적 말차레 끼어들기의 개월별 출현 빈도

개월	SJ(F)	YJ(F)	DU(M)	SB(M)	합계
33	-	-	5	-	5
34	1	0	6	5	12
35	3	5	5	8	21
36	3	3	13	5	24
37	1	3	6	6	16
38	4	8	5	2	19
39	2	5	3	15	25

13) 그러나 아동의 우호적 말차레 끼어들기에서는 이원표(2001)에서 제시한 ‘친밀감 증진’을 위한 말 끼어들기는 발견되지 않았다.

개월	SJ(F)	YJ(F)	DU(M)	SB(M)	합계
40	0	3	9	6	18
41	10	6	11	11	38
합계	24	33	63	58	178

조사 대상 아동 네 명 가운데 남아인 DU와 SB는 모든 개월에서 비우호적 말차례 끼어들기가 출현하고 있었고, 여아인 SJ와 YJ는 각각 40개월, 34개월을 제외하고는 모든 개월에서 출현하고 있었다.

비우호적 말차례 끼어들기의 구체적인 출현 양상을 살펴보면, 비선호적 응대, 주제 전환, 비난 등을 하며 말차례 끼어들기를 하는 예가 관찰되고 있다.

아동은 대화 상대방과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반대 의견을 드러내거나 상대방의 행위 요구에 대해 거부 의사를 표현하는 과정에서 말차례 끼어들기를 하고 있다.

- (8) 엄마 : ○○아, 이걸 뭐야?  
 선생님 : 토끼인가보다, 토끼.  
 엄마 : 뭐지?  
 아동 : 아니야.  
 선생님 : 그러면? 선생님 [1좀 가르켜 줘, ○○이가].  
 아동 : [1아니야.  
 아동 : 고양이.  
 선생님 : 이거 고양이야? 헤! ((-))네. <SJ(F), 35개월>

- (9) 오빠 : 엄마 등 좀 긁어 줘라.  
 아동 : 아-.  
 오빠 : 엄마 등 좀 [1긁어 줘라. 등 좀 긁어 줘.  
 아동 : [1아 아아-.  
 아동 : 아 아 아. <YJ(F), 41개월>

- (10) 엄마 : ○○아 이리 와. 너 또 거기 가면 어떡해-. 바지 입구 약구  
 줌 먹구, 너 학원에 가서 즐까봐 엄마가 약 안 먹었잖아.  
 아동 : 아! ((-))요.  
 엄마 : 약 먹구 가면 즐리울(졸릴) 수도 [1있잖아].  
 아동 : [1잘 안 들려-.  
 엄마 : 뭐가 안 들려-.  
 아동 : 엄마가 말하는 거, 내가 말하는 거. <DU(M), 39개월>

(8)에서 아동은 선생님의 선행 발화 ‘토끼인가 보다 토끼’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현하기 위해 ‘아니야’를 선생님의 ‘선생님 줌 가르켜 줘, ○○가’가 발화되는 도중에 끼어들며 말하고 있다. (9)에서도 오빠의 행동 요구인 ‘엄마 등 줌 굶어 줘라’라는 발화에 거부 의사 표현을 오빠의 발화 도중에 ‘아 아아-’라는 감탄사를 사용하며 발화하고 있다. 아동의 비우호적 말차레 끼어들기에는 이와 같은 감탄사를 통한 사례가 빈번히 출현하고 있었다. (10)에서도 엄마의 발화 내용을 수용하지 못하겠다는 발화를 엄마가 발화하고 있는 도중에 ‘잘 안 들려’라는 수용에 대한 신체적 불가능 상태를 기술하며 끼어들고 있다. 이러한 반대 의견, 거부의 응대를 하기 위한 말차레 끼어들기는 성인 대화에서는 대화 참여자 사이의 갈등을 불러올 수 있는 응대 태도로 인식되는 것들이다.

주제 전환을 하며 말차레 끼어들기가 일어나기도 한다.

- (11) 아동 : 나두 아빠 사랑해.  
 엄마 : 얼마큼-. ○○아 얼마큼 [1사랑하는데?  
 아동 : [1엄마,  
 아동 : 엄마, 즐긋기야. 즐긋기.  
 엄마 : 어- 즐긋기하고 있어? <DU(M), 36개월>

- (12) 엄마 : 라디오-.  
 아동 : 응 라디오 [1이건.  
 엄마 : [100이 목소리도 녹음도 하고, 음악도 듣고 [1하는 거지.

아동 : [1와 케이크다]  
 엄마 : 케이크네-, 케이크는 십이쪽에 붙이래는데. <SB(M), 33개월>

(11)과 (12)에서 아동은 엄마가 이야기하고 있는 주제와는 다른 주제를 도입하여 말차례 끼어들기를 하고 있다. 주제 전환은 현재 화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주제에 대해 충분히 이야기하였거나 대화 참여자 사이의 주제 전환에 대해 합의가 있을 경우 이루어진다. 그러나 위의 두 예문에서 본 아동들은 선행 화자의 주제와 관련 없는 주제를 엄마와의 합의 없이 엄마의 발화 도중에 도입하고 있다. 도입하는 주제는 현재 대화 상황에서 하는 아동 자신의 행위에 대한 기술이나 대화 상황에서 알 수 있는 새로운 정보들이다. 만약 성인 사이의 대화에서 위와 같은 주제 전환을 위한 말차례 끼어들기가 발생한다면 대화 상대방의 체면 손상이라는 부정적인 결과를 낳을 수 있지만, 아동과 양육자 사이에서 발생하는 위와 같은 상황은 다른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양육자인 엄마는 (11)에서는 자신이 수행하고 있던 질문 화행을 포기하고 아동의 발화에 응대하고 있고, (12)에서도 아동의 발화를 반복하며 응대하여 주제 전환을 수용하고 있다.

비우호적 말차례 끼어들기에서 아동은 대화 상대방의 말차례 수행 도중에 말차례를 가져오기 위한 전략으로 ‘엄마’라는 호칭어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았다.

- (13) 엄마 : 아기 침대로 해.  
 아동 : 아기 침대? 또 [1아기,  
 엄마 : [1아기 침대는 이게 있거든. 침수. 침대에 서랍장  
 있수? ((하이튼 침대))가 뭐고. 아 이거 [2(-).  
 아동 : [2어= 어= 엄마. 엄마  
 엄마 이거랑 이거 내 똑같은 거야?  
 엄마 : 어.  
 아동 : 엄마 이거 누구꺼-요(누구 것일 까요). <YJ(F), 40개월>

(13)에서 아동은 엄마의 발화가 수행되고 있는 도중에 말차례를 가져오기 위해 ‘엄마’라는 말을 반복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엄마’를 사용하는 이유는 아동 자신의 발화에 엄마의 관심을 집중시키기 위한 것으로 ‘호칭’의 기능이 아닌 ‘집중하기’의 기능을 위한 사용이다.

선행 화자가 발화하고 있는 도중에 아동은 상대에 대한 비난의 내용을 발화하며 말차례 끼어들기를 일으키기도 한다.

(14) 아동 : 엄마!

엄마 : 응?

아동 : 개구리 ((-), 개구리.

엄마 : 다리도 만들고, 개구리 눈도 만들고, [1다리-,

아동 : [1개구= 왜 개구리 다리

안 만들었어?

엄마 : ○○아 이거는 ○○이가 붙여야지. 이 요 뭐라 그러지? <S(F), 38개월>

(14)에서 아동은 선행 화자인 엄마가 발화하고 있는 도중에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이 있자 엄마의 발화가 끝나기도 전에 불만을 드러내며 자신의 요구를 발화하고 있다. 성인들 간의 대화에서 위와 같이 대화 상대방을 비난하는 내용의 발화를 하며 말차례 끼어들기를 수행한다면 갈등이 발생할 확률이 높은 대화 방법이다.

세 명 이상의 화자가 참여하는 대화에서 아동은 비우호적 말차례 끼어들기를 하곤 한다. 세 명 이상의 대화에서 말차례 교체 규칙의 적용은 아동에게 보다 복잡하게 느껴지는 것을 볼 수 있다. (15)는 엄마가 다음 화자를 지정하였는데도 아동이 말차례 끼어들기를 하며 대답하는 예로 말차례 교체 규칙을 어긴 비우호적 말차례 끼어들기로 볼 수 있다.

(15) 아동 : 부드러운 감.

엄마 : 부드러운 감-. 그런 걸 연시라 그러지. ○○가 좋아하는 과

일은 뭐예요?

누나 : 체리, 오렌지, 과= 그리고- 레몬, [1그리고, 감 그리고, ((-))  
바나나 그리고- 앵두 그리고, 그리고,

아동 : [1내, 내, 나, 주황색 감,  
사과, 감, 바나나, 감 그래.

엄마 : <웃음> 알겠어요.

아동 : 바나나 장난감 타기. <DU(M), 36개월>

(15)에서 아동은 엄마, 누나와 대화를 하고 있다. 엄마가 누나에게 ‘좋아하는 과일이 뭐예요?’라고 질문하여 누나가 대답하고 있는 도중에 아동도 엄마의 질문에 대답하며 말차례 끼어들기를 일으키고 있다. 엄마가 분명히 누나의 이름을 말하며 대답할 화자를 지정해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엄마의 질문에 대해 아동도 대답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말차례 끼어들기는 교체 적정 지점을 잘못 파악한 우발적 말차례 끼어들기와는 분명히 차이가 나는 것으로 말차례 교체 규칙에 대한 습득이 완전하지 않음을 보여주는 예이다.

아동은 대화 상대방이 다른 대화 참여자와 이야기하고 있는 도중에도 자신의 요구를 들어달라고 말차례 끼어들기를 하며 발화하기도 한다. (16)에서는 엄마가 전화 통화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아동의 말차례 끼어들기가 일어나고 있다.

(16) 아동 : 엄마! 올리게 해 줘-. 얼른-!

엄마 : 알았어.

아동 : 얼른. 올[1라-!

엄마 : [1여보세요? 예. & 아니, 바쁜 시간 아닌데, 어떻게 그렇게 돼 갖고, & 내일 갔다가, 목요일 날 오거든요-. 그래 갖고 수요일이 끊겨, 예, 또 그렇게 돼 버려 가지구, & 그러니깐요. [1그냥 수= 지금은 방학이 아니라서 미는 게 [2아니잖아요. 예-.

아동 : [1엄마-

[2얼른-!



엄마 : 예.

아동 : 얼른-! <SJ(F), 41개월>

(16)에서 아동은 엄마가 다른 사람과 대화를 나누고 있는 상황임에도 자신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엄마의 발화 도중에 끼어들어 말하고 있다.

이와 같이 아동의 대화에서는 반대 의견과 거부 의사를 드러내기 위해, 주제를 전환하기 위해, 비난 내용을 표현하기 말차레 끼어들기를 수행하고 있었다. 또한 자신에게 말차레가 주어지지 않았는데도 말차레를 가지기 위해 끼어드는 경우들이 있었다. 성인의 일상대화라면 인간 관계에서 체면 위협과 갈등 유발을 일으키는 비우호적 말차레 끼어들기가 아동 대화에서는 빈번하게 출현하고 있는 것이다. 아동들이 언어 습득 단계에 있다는 점을 감안해, 아동과의 대화에서 발생하는 비우호적 말차레 끼어들기에 엄마는 수용적 태도를 보이며 응대하고 있었다.

### 3) 우발적 말차레 끼어들기

말차레 교체 적정 지점을 잘못 파악하여 발생하는 우발적 말차레 끼어들기는 Leivnson(1983)에서는 ‘우발적인 말의 중복’에 해당하는 것이다. 본 연구의 분석 자료에서는 전체 592회 말차레 가운데 280회 출현하여 47.3%로 말차레 끼어들기의 하위 유형 중 가장 높은 빈도로 출현하고 있었다. <표 6>은 아동별 개월에 따른 변화 양상을 보인 것이다.

<표 6> 우발적 말차레 끼어들기의 개월별 출현 빈도

개월	SJ(F)	YJ(F)	DU(M)	SB(M)	합계
33	-	-	4	-	4
34	1	0	8	12	21
35	5	1	11	10	27
36	1	14	15	10	40
37	8	11	8	9	36
38	8	9	6	15	38

개월	SJ(F)	YJ(F)	DU(M)	SB(M)	합계
39	4	7	16	12	39
40	4	4	8	25	41
41	3	5	11	15	34
합계	34	51	87	108	280

DU와 SB는 조사 대상 기간 전체에서 우발적 말차례 끼어들기가 출현하였고, SJ와 YJ는 34개월을 제외하고는 모든 개월에서 출현하고 있었다.

아동 대화에서 우발적 말차례 끼어들기는 선행 화자의 수행 화행에 대한 응대 화행을 수행하며, 혹은 아동이 자신에게 주어진 말차례를 유지하는 전략을 아직 습득하지 못해 발생하기도 한다.

아동은 선행 화자의 질문, 요구 화행에 대한 응대 화행을 수행하며 말차례 교체 적정 지점을 잘못 파악해 끼어드는 결과를 보여주기도 한다.

- (17) 엄마 : 이리 와. 다른 친구들은 다 반바지 입구 왔어?  
아동 : 어.  
엄마 : 너두 반바지 입구 갈꺼야? [1아이],  
아동 : [1아니].  
엄마 : 목요일날 소풍 간대-. 어~ <DU(M), 39개월>

(17)에서 아동은 엄마의 질문 발화가 끝나자 대답을 하기 위해 발화하고 있다. 그러나 엄마는 ‘너두 반바지 입구 갈꺼야?’란 발화로 말차례를 끝낸 것이 아니라 부가적인 정보를 더 발화하고자 하였고, 이때 아동과의 말차례가 중복되자 다음 번 말차례에서 자신의 발화를 이어나가고 있다. 이처럼 아동은 말차례 교체가 일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지점에서 발화하여 우발적 말차례 중복을 일으키기도 한다.

아동은 말차례 유지를 위한 전략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해 대화 상대방의 발화와 중복이 일어나기도 한다. 즉 아동의 발화와 발화 사이에 존재하는 휴지가 대화 상대방에게는 말차례 교체 적정 지점으로 판단되어 말

차례를 가져가려고 하는 경우, 아동의 말차례와 중복되는 일이 발생하는 것이다.

- (18) 엄마 : 니 뭐 만들고 있어?  
 아동 : 나?  
 엄마 : 응.  
 아동 : 집.  
 엄마 : [1집 만들고 있지?  
 아동 : [1집 만=  
 아동 : 에 집 만들고 이어(있어).  
 엄마 : 집 만들고 있는 중이야?  
 아동 : 응. <YJ(F), 38개월>

(18)에서 아동은 엄마의 ‘니 뭐 만들고 있어?’라는 질문에 집을 만들고 있다는 발화로 응대하려 하고 있다. 아동의 두번째 발화에서 ‘집’을 발화한 후, 이어 ‘집 만들고 있어’를 발화하고 있는데, 이때 ‘집’과 ‘집 만들어 있어’ 발화 사이의 휴지가 있어 엄마는 교체 적정 지점이라 판단하게 된 것이다. 즉 말차례 유지를 위한 전략이 미숙하여 말차례를 넘겨주는 상황으로 이해되었고 말차례 끼어들기가 일어난 것이다.

위와 같은 말차례 유지 전략의 미숙으로 인한 우발적 말차례 끼어들기는 발화를 반복하여 말하는 아동의 특성과 함께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 (19) 아동 : 어어. 안={부정하려는 듯} 십이월 삼일은, 내생일이라 그랬잖아-.  
 엄마 : <웃음/하하하> [1((물이 끓으면)) 먹을까?  
 아동 : [1십이월,  
 아동 : 십이월 삼일은 내 생일이라 그랬잖아-. <SB(M), 36개월>

(19)에서 아동의 첫번째 발화 ‘그랬잖아-.’가 장음으로 끝나고, 아동의 발화 후 엄마 웃는 시간을 감안해 볼 때 엄마로서는 말차례 교체가 일어나

기에 충분한 지점이라 생각되어 발화하고 있다. 그러나 아동은 자신의 발화를 다시 반복하며 말하여 결과적으로 말차례 끼어들기가 되고 말았다.

아동은 대화 상대방에게 질문이나 확인 요청을 한 후, 이에 대한 응답을 기다리지 못하고 아동 자신의 이야기를 계속하는 하고자 하여 우발적 말차례 끼어들기가 되게 하기도 한다.

(20) 엄마 : 왜? 또 꽃씨 심을라고(심으려고)?

아동 : 아니. 꽃 인제 남았나?

엄마 : [1꽃씨?

아동 : [1어딴어?

아동 : 아니. & 이야-, ((꽃이 나올라 그래)). <SB(M), 40개월>

(21) 엄마 : 재밌는(재미있는) 얘기 해 줘.

아동 : 뭐랬는 얘기? 응? 어? 어, 뭐 뭐랬는 얘기-.

엄마 : 아주 재밌는 얘기 하나 해 주세요-.

아동 : 그거? [1무서운,

엄마 : [1예.

아동 : 무서운 거는, 재미없는 건데. 어떤 거 해줄까? <YJ(F), 41개월>

(20)에서 아동은 ‘꽃 인제 남았나?’라는 질문을 하고 엄마의 대답을 듣지 않은 채 계속 발화를 이어가다 말차례 끼어들기가 발생한 것이다. (21)에서도 ‘그거?’라는 확인 질문을 한 후, 이에 대한 대답을 기다리지 않고 연이어 자신의 발화를 하고 있어 말차례 끼어들기가 발생하였다.

언어 발달 단계에 있는 아동 발화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모방 발화이다. 아동의 모방 발화는 언어 습득을 위한 전략의 하나로 일정 기간 나타났다 사라지는 현상이다. 본 연구의 분석 대상인 34~41개월 아동은 모방 발화가 아직은 사라지지 않은 시기로,<sup>14)</sup> 모방 발화가 대화 상대방의

14) 모방 발화가 아동의 응대 발화 중 차지하는 비율을 보면, 12~17개월에는 48%, 18~23개월에는 25%, 24~29개월에는 27%, 30~35개월에는 11% 출현하고 있었다(김

발화에 끼어드는 경우가 있었다. 우발적 말차례 끼어들기를 일으키는 모방 발화에서의 끼어들기는 학습을 위한 대화에서 많이 보인다.

- (22) 언니 : ○○아, 이거 뭐야?  
 아동 : 팽-권.  
 언니 : 병아리. [1병아리는 여기-,  
 아동 : [1병아리.  
 아동 : 응.  
 언니 : 병아리 노란색이고, <YJ(F), 36개월>

(22)에서 아동의 발화는 선행 화자인 언니의 발화를 모방하여 발화하고 있는데, 언니는 ‘병아리.’라고 하여 말차례 교체가 가능한 것으로 인식될 수 있다. 아동은 이 지점에서 말차례를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하였고, 학습 상황에서 언니의 발화를 모방하고자 하여 말차례 중복이 일어난 것이다.

우발적 말차례 끼어들기는 아동이 성인과의 대화에서 대화 상대방의 발화에 응대하지 않고, 놀이에 집중하며 혼잣말 하는 경우에도 발생한다.<sup>15)16)</sup>

- (23) 아동 : 치이-, #탑 브레이드, 음음#.   
 엄마 : ○○이[1는,  
 아동 : [1#탑브레이드, 탑 블레이드 음음 음음#. & 이이이-.  
 엄마 : 에휴, xx이가 젓 달래.  
 아동 : #음 음.# {홍얼거린다}  
 엄마 : 에고, xx이 젓 줘 주고  
 아동 : #음 음.# {계속 홍얼거린다}

---

정선 · 장경희 2007).  
 15) 독백 발화의 출현 비율은, 12~17개월에는 33.6%, 18~23개월에는 8.9%, 24~29개월에는 9.8%, 30-35개월에는 6.6%로 조사된 바 있다(김정선 · 장경희 2007).  
 16) 분석 자료에서는 총 42회가 출현하였다. SJ(F) 2회, YJ(F) 3회, DU(M) 19회, SB(M) 18회 출현하였다.

엄마 : ○○이 엄마 등에 붙어 누워. 안 누워? & ○○이 내일 아침  
에는, 김치 찌개하고 밥 먹어? 그럴 꺼야? & 뭐 해?

<SB(M), 39개월>

(23)에서 아동은 놀이하면서 독백을 하고 있으며, 이때 독백의 특징은 주로 의성어가 많이 사용된다는 점이다. 대화 상대방인 엄마는 아동과의 대화를 시도하기 위해 ‘○○이는’이라는 이름을 부르며 발화를 하고 있지만 아동은 이에 관심을 갖지 않고, 엄마 발화 도중에 독백을 하고 있다. 독백이 계속되자 엄마는 마지막 발화에서 ‘뭐 해?’라고 질문하며 응대를 다시 한번 요구하고 있다. 이와 같이 대화 장면에서는 대화 참여자가 있지만 아동은 소통을 하지 않는 독백을 하고 있으며 독백 발화가 대화하고자 하는 상대방의 발화와 우발적인 끼어들기로 보이게 되는 것이다.

이상과 같이 아동의 우발적 말차례 끼어들기는 자신의 말차례를 유지하기 위한 전략의 미숙과 선행 화자의 말차례가 지닌 교체 적정 지점을 잘못 예측해 발생하고 있었다. 특히 말차례 끼어들기의 다른 유형에 비해 높은 빈도로 출현하고 있는 점, 모방 발화와 독백 발화에서의 말차례 중복 등은 성인 대화에서의 말차례 끼어들기와는 다른 특성으로 파악되었다.

### Ⅲ. 결론

본 연구에서는 언어 습득 단계에 있는 아동의 말차례 교체에서 일어나는 끼어들기의 수행 양상을 살펴보았다. 33~41개월 아동을 대상으로 말차례 끼어들기 비율을 조사하고, 말차례 끼어들기의 하위 유형별 출현 빈도와 수행 양상을 분석하였다. 분석 대상 아동은 전체 말차례 가운데 평균 4% 정도의 말차례 끼어들기를 하고 있었고, 하위 유형별 출현 빈도는

‘우발적 말차례 끼어들기 > 비우호적 말차례 끼어들기 > 우호적 말차례 끼어들기’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말차례 교체 적정 지점에 대한 판단을 잘못하여 발생하는 우발적 말차례 끼어들기가 높은 빈도로 나타나고 있었다. 우발적 말차례 끼어들기에는 모방 발화나 독백 발화를 수행하며 대화 상대방의 말차례에 중복되는 사례들도 관찰되었는데 이는 아동 대화의 특성으로 파악되었다. 또한 반대 의견과 비난 내용을 제시하기 위해, 혹은 주제 전환을 위해 수행하는 비우호적 말차례 끼어들기도 높은 빈도로 출현하고 있었다. 반면에 대화 진행과 대화 상대방과의 관계를 증진시키는 우호적 말차례 끼어들기는 출현 빈도가 낮게 조사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말차례 교체의 일부 현상인 ‘말차례 끼어들기’를 중심으로 논의하였다. 아동의 상호작용 능력의 일부가 분석된 것인데, 본 연구에서 분석한 시기 이후의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 또래와의 대화에서 보이는 말차례 교체 양상 등에 대한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 참고문헌

- 김순자(2000), “말차례 뺏기에 나타난 남녀 화자의 특징”, 『화법연구』 2, 한국화법학회, pp. 61~92.
- 김정선·장경희(2007), “유아의 화행 수행 능력의 발달 단계”, 『국어교육학연구』 30, pp. 327~360.
- 박정진(2009), “토론 담화에서의 말차례 끼어들기와 유지하기 양상”, 『문법교육』 10, 한국문법교육학회, pp. 119~143.
- 이승복(1994), 『어린이를 위한 언어획득과 발달』, 정민사.
- 이원표(2001), “토크쇼에서의 말 끼어들기 : 담화 기능과 사회적 요인”, 『담화분

\* 이 논문은 2012년 5월 11일에 접수하여 2012년 5월 30일에 논문 심사를 완료하고 2012년 6월 8일에 게재를 확정함.

- 석』, 한국문화사, pp. 275~322.
- 이창덕 외(2000), 『삶과 화법』, 박이정.
- 이효진·김영태(2001), “단순언어장애 아동의 대화 말차례 특성”, 『언어청각장애 연구』 6-2, pp. 293~312.
- 임규홍(2001), “국어 담화의 ‘끼어들기’ 유형에 대한 연구”, 『언어과학연구』 20, pp. 1~32.
- Bennett, A.(1981), Interruptions and the interpretation of conversation, *Discourse processes*, 4.
- Levinson, S. (1983), *Pragmatics*, Cambridge : Cambridge University Press(이익환·권경원, 『화용론』, 서울 : 한신문화사, 1992).
- Mathew McKay·Martha Davis·Patrick Fanning(1995), *Messages : The Communication Skills Book*(임철일 외 옮김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위한 기술』, 서울 : 커뮤니케이션북스, 1999).
- Owens R.E.,(2005), *Language Development : An Introduction*(이승복 외 옮김, 『언어발달』, 서울 : 시그마프레스, 2005).
- Sacks, H., Schegloff, E., and Jefferson, G.(1974), A simplest systemics for the organization of turn-taking, *Language* 50, pp.696-735.



〈국문초록〉

## 아동의 말차레 끼어들기 양상에 대한 연구

김 정 선

본 연구의 목적은 34~41개월 아동의 말차레 교체에서 일어나는 끼어들기의 수행 양상을 살펴보는 데에 있다. 이를 위해 아동의 말차레 끼어들기 비율을 조사하였고, 말차레 끼어들기의 하위 유형별 출현 빈도와 수행 양상을 분석하였다. 분석 대상 아동은 전체 말차레 가운데 평균 4% 정도의 말차레 끼어들기를 하고 있었고, 하위 유형별 출현 빈도는 ‘우발적 말차레 끼어들기, 비우호적 말차레 끼어들기, 우호적 말차레 끼어들기’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말차레 교체 적정 지점에 대한 판단을 잘못하여 발생하는 우발적 말차레 끼어들기가 높은 빈도로 나타나고 있었다. 우발적 말차레 끼어들기에는 모방 발화나 독백 발화를 수행하며 대화 상대방의 말차레에 중복되는 사례들도 관찰되었는데 이는 아동 대화의 특성으로 파악되었다. 또한 반대 의견과 비난 내용을 제시하기 위해, 혹은 주제 전환을 위해 수행하는 비우호적 말차레 끼어들기도 높은 빈도로 출현하고 있었다. 반면에 대화 진행과 대화 상대방과의 관계를 증진시키는 우호적 말차레 끼어들기는 출현 빈도가 낮게 조사되었다.

- **핵심어** : 말차레 끼어들기, 우호적 말차레 끼어들기, 비우호적 말차레 끼어들기, 우발적 말차레 끼어들기, 아동

<ABSTRACT>

## Study on Turn-Taking Intervention of Children

Kim, Jung-su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turn-taking behaviors among children aged 34-41 months. We investigated the rates of children's turn-taking interventions and analyzed frequencies and aspects by subcategories of turn-taking interventions. The result shows that 4% of the child participants displayed turn-taking interventions. "Accidental turn-taking intervention," "unfriendly turn-taking intervention," and "friendly turn-taking intervention" are the most frequent types of subcategories, in the respective order. The frequency is high for accidental turn-taking intervention which is the result of a mistaken judgment on the proper time for turn-taking. Accidental turn-taking behaviors occurred when a child made imitation utterance or monologue utterance simultaneously with the person speaking, and such behavior seems to be a characteristic of child conversation. Also unfriendly turn-taking intervention occurred frequently to either express an objection or blame, or change the subject. On the other hand, the frequency of friendly turn-taking intervention, which helps the progress of the conversation and enhances the relationship with the person speaking with, turns out to be low.

- www.kci.go.kr
- **Key words** : turn-taking intervention, friendly turn-taking intervention, unfriendly turn-taking intervention, accidental turn-taking intervention, child